

Safety



제조 · 서비스업

안전이 미래다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주)안전신문사

제조·서비스업

안전이 미래다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주)안전신문사



5



17



29



41

5 한화 구미사업장
안전이 미래다

17 호텔롯데
고객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

29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우리는 안전 초일류기업

41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3중 안전 빈틈은 없다

안전이 미래다

CONTENTS



53



65



77



89

53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위험 옆의 안전은 없다

65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스스로 책임지는 안전문화

77 코레일 광주본부
안전마인드를 살려라

89 KCC 전주1공장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라

제조·서비스업

안전이 미래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

제작 안전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Tel 2275-3408

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500

+ 이 책은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는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에 따라 안전신문사가 제작했습니다.



한화 **구미사업장**

설립일 2005년
 대표자 윤경식
 대표전화 054-467-8500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64-36
 홈페이지 www.

한화 방산부문은 각종 탄약류 개발과 함께 정밀탄약체계에서부터 정밀유도무기체계, 무인체계, 해중장비, 위성발사체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범위를 넓히자면 경찰, 탐지, 정밀타격으로 연계되는 종합방위산업의 'Global Top Leader'로서 미래전장운영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국가방위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특별한 현장이다.

안전이 미래다



불가능에 가까운 100% 완전 안전활동 추구

한화 구미사업장(사업장장 윤경식)은 화약을 취급하는 업종 특성상 안전의 확보 없이는 당연히 내일도 없다. 그러니 이곳에서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업생존의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다. 안전이 미래다.

그래서 이곳의 안전활동은 100% 완전을 추구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한 도전을 시도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기본준수,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런 남다른 노력을 바탕으로 한화 구미사업장은 지난 5월 무재해 20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무재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했다.

한화 구미사업장의 연속 무재해 기록은 오는 11월 25일이면 '3780일+607만8000인시'로 무재해 21배를 달성하게 된다. 한화 구미사업장은 어떤 노하우로 이같은 천

이곳의 안전활동은 100% 완전을 추구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한도전을 시도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기본준수,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곳이 이곳이다.



금같은 안전을 일궈내고 있을까.

한화 구미사업장은 ‘함께 더 멀리’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향해 나가자는 목표 아래 ‘함께하는 안전’, ‘멀리보는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밀착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면서 안전경영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의 이중효과를 캐내고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한화 구미사업장의 안전핵심은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향해 나가자는 강력한 경영진의 의지가 확실히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은 회사 최고 경영이념... SHEC 방침 구체화

CEO는 ‘현장의 대표로서 안전은 회사의 최고 경영이념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틈틈이 ‘안전친서’를 내보낸다. 그리고 이런 뜻은 곧 방산부문장(각팀장)의 안전교육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된다.

CEO의 강력한 안전실천의지는 23개 안전경영요소를 담은 ‘SHEC 경영방침’으로 구체화된다.

SHEC 경영방침은 관리직 전원이 매일 2시간 이상 현장을 방문해 행동관찰, 점검, 위험성평가 등 주요 안전경영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안전경영활동은 이슈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는 이벤트성 업무가 아니라 전임직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다.

여기서의 안전경영요소는 안전을 23개 요소로 세분화하고 요소별로 Action Plan을 수립하는 것으로 Dupont사로부터 벤치마킹했다. 인력 11개, 설비 및 기술 12개 요소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내고 이에 대한 각 요소별로 Action Plan을 수립하는 것이다.

모든 생산활동 중단 '안전의 날' 운영

한화 구미사업장은 한달에 한번 특별히 쉬는 날이 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루는 생산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경영활동에 참여한다. 이 날이 바로 '안전의 날'로 매달 셋째주 금요일 생산활동을 중단하는데 이 작업중단의 금액을 따지자면 연간 금액환산 8억7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안전의 날에는 인원 5~20명 내외로 공정별 안전활동 조직을 구성한다. 기존에 없던 조직을 별도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팀 그 자체가 소그룹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 무재해 소그룹은 계장·주임 등으로 소그룹 리더를 지정하고 'My zone·My machine' 활동을 펼친다. 이 활동과 교육의 특징은 참여식과 강의식의 혼합이다. 강의식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참여식 교육은 경험하게 한다. 이때 직원들은 안전다짐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개선사례를 발굴·토의한다.

이곳의 'My zone·My machine'은 1인당 1대 이상의 설비 또는 구역을 배정하고 본인 이름표를 부착해 예방보전 및 정비 내용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다양한 테마활동을 하는 한화 구미사업장에서 주목할 것은 '행동관찰제'로 외국 Dupont사 STOP제도에서 따왔다. What if/How 대화기법을 활용해 불안정한 행동을 시정하고 교육한다.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을 관찰해서 잘못이나 고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대화를 통해 안전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토록 한다.

앞으로 안전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받는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고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으며 시정을 하는 것이 'What if' 기법이며 '더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 'How 기법'이다.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간존중 사상을 심어 상하관계가 수평관계로, 강압이 자율로,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사고로 바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절대안전수칙 준수가 무재해 비법

한화 구미사업장의 무재해 기록 달성에는 이곳의 '절대안전수칙 준수'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의 절대안전 수칙은 외국 Cardinal rule을 도입한 것으로 BHPB, Dyno, Orica를 벤치마킹했다.

이의 준수를 위해 선포식, 캠페인을 펼쳤고 배지를 다는가 하면 개인서약서도 작성했다.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작업자의 생명과 관련되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회사 모든 임직원이 절대 어겨서는 안되는 규칙으로 엄수된다.

한화 구미사업장에는 '4대필수 안전수칙'이란 것도 있다. 안전보호구 착용, 위험을 보여주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을 배우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시 위험에 방 안전 작업절차 지키기 등 네가지다.

보호구는 지급 및 착용기준을 시각화하고 송기마스크를 설치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조작금지 표지(tag-out), 사내제한속도, 비상대피로 및 유도표시 등이 부착되는데 여기엔 '휴대폰 반입금지'가 포함된다.

작업절차 지키기는 작업절차를 시각화하고 안전휴대폰에 대한 관리지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 심리상담과 화약류 위력시범을 포함한다.

이곳의 휴대폰 관리지침은 좀 특별해서 출근 후 바로 현장사무실 보관함에 넣는다. 부득이하게 핸드폰이 필요한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거나 작업장 밖에서 사용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한화 구미사업장의 위험 인식 및 제거 프로그램 HIRP(Hazard Identification & Removal Program)도 강력하다. 위험인식 Check list는 작업 실시 전 5분간 생각해 작업자가 스스로 작성한다. 위험 인식 → 조치계획 수립 → 조치 완료 → 작업 순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이곳의 작업환경 개선과 관계가 있



다. 환경 개선을 위해 이곳에서는 석면해체공사에 6억원, 휴게시설 개선과 모성보호실 설치에 1억5000만원을 들였다. 폐수처리장 개선에도 1억4000만, 전기관넬 내 소화장비 설치에 1억원을 썼다. 석면 해체는 법적 대상이 아닌데도 거액을 쏟아부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착실하다. 맞춤형 식당을 운영하고 금연, 절주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구내에 걷기트랙도 조성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관리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물론 건강관리후 정상인원은 근로제한을 해지한다.

함께하는 안전 · 멀리보는 안전

‘함께하는 안전’, ‘멀리보는 안전’을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효를 살려야 한다. 개인 평가는 인사고과, 팀평가에 반영된다. 사업장평가는 55개 항목, 20% 비중을 차지하며 본사평가의 경우 55개 항목(20% 비중), 그룹평가 160개 항목(20% 비중)이다. 이중 팀평가에서 안전보건이 10~20%를 차지하며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 평가에서 70점 미만이면 사업장에 경고장이 발부된다. 이런 노력으로 제조업 평균 재해율이 15%인데 이 사업장 재해율은 17년 동안 0%였다.



열성적 최고경영자와 근로자 소통 원할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능동적이라면 사업주의 참여활동은 열성적이다. 그래서 최고경영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 노사 합동점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년에 2번이라면 주 1회 환경안전 Patrol이 펼쳐진다. 근로자들의 능동적 참여 항목으로 위험성평가·위험인식 Check list, 니어미스 발굴, 노사안전수칙 준수·절대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행동관찰제, 안전의 날 행사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의 참여활동 역시 스케줄이 빡빡하다. 노사 합동점검, 환경안전 Patrol,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안전경영계획 수립지침 토론회, 안전경영방침 선포식 및 교육 강사 참여, 안전의식과 안전한 직장생활 교육강사 참여, 절대안전수칙 선포식 참여, 안전보건공단 교육 등 갖가지다.

그러나 이런 정해진 것 외에 최고경영자의 자율적 안전활동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통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것이 이곳 무재해 기록 유지의 원동력이 되는 듯하다.



구미사업장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모든 직원이 안전제안 · 위험요인 발굴 행동관찰제로 늘 깨어 있는 안전 실천

매일 작업 5분전 안전교육과 점검이 실시된다.

모든 직원들은 안전제안을 할 수 있다. 안전제안, 위험요인 발굴은 신속 정확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유해위험요소 Zero를 위한 위험요인 발굴에는 인간공학 기법 등 신규 위험성평가 기업을 도입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행동관찰제도 효율이 높다. 안전점검 상시화, 행동관찰 습관화는 늘 안전의식이 깨어 있도록 하는 하는데 효과적이다.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이곳의 무재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화 방산부문은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말할 것 없고 모든 작업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유하고 국내 최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고 안전을 앞에서 이끄는 CEO의 힘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안전은 절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발전과 개인 행복 그 양쪽의 필수요소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는 화약을 취급하는 업종의 특성상 안전의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는 것이지요.”

Interview 사업장장 윤경식

“안전은 회사 발전 · 개인 행복의 필수요소
전 임직원의 성취감과 자긍심 매우 높아”



윤경식 한화 구미사업장 사업장장은 안전을 회사의 최고 경영이념으로 삼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작업도 절대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강렬한 안전실천의지를 내비친다.

윤 사업장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라도 직원들의 안전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결과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팀단위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안전의 날 소그룹 회의를 통해 사업장 차원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개선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자에게 개선

처리 현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것이다. Follow-up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는 등 언제나 적극 소통의 중심에 그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전에 대한 CEO의 특별한 개발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본다..

“안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노하우는 전 임직원에게 사업장장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안전기장은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장 안전 Patrol, 사업장장 안전교육, 사업장장 안전감담회 등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에 사업장장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장기간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지난 5월 8일 무재해 20배수를 달성하고 올해 11월 무재해 21배수를 앞두고 있는데 무재해 달성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팀장 주관하에 안전서문을 낭독하고 수시로 동료간에 안전대화를 나누도록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무재해 배수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긍심이 높아져 안전동기 또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한화 구미사업장의 남다른 안전실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우리 사업장의 안전 경영비전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방문객 및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업기회 제공, 투자, 현지 구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한화 구미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사례 찾아다니며 ‘행동관찰제’ 도입

안전의 달인 | 백지연 환경안전팀 대리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니까요.”

이곳 안전담당자 백지연 대리는 당초 그룹공채 교육을 받고 각 사업장으로 배치될 때 환경안전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가게 돼 있었으나 웬일인지 본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결국 환경안전팀으로 왔다. 그것이 2010년이었으니 올해로 6년째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동분서주하며 위험성평가, 점검, 소방, 위험물, 화약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소신이 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안전부문을 한직으로 여기고 있을 때도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이롭게 할수 있는 일이 안전관리 업무’라고 고집했다.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들어도 보람에 산다는 자부심이 그의 발길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이곳에선 매주 셋째주 금요일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의 날 활동을 실시하는데 2000년부터 시작된 활동이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았다. 안전교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고 점검정비 활동도 형식적이었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집체식 안전교육을 소그룹별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 백지연 대리였다.

학습자가 직접 말하고 토론하고 체험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My zone, My machine 활동, 점검 실명제, 점검 Check list 개정을 실시해 점검정비활동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시킨 것도 백 대리의 공이 컸다. 그뿐 아니라 외국 Dupont사 STOP제도를 벤치마킹해 행동관찰제를 도입한 것도 그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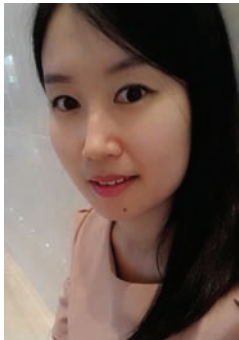
그러나 행동관찰제도 좋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있던 중에 Dupont사의 What if/How 대화기법을 알게 되고 그 효율성에 매료됐다.

관리직 사원, 현장 주임, 계장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며 우수 사례 포상, 개인별 과제수행(동영상 실습, Roleplay 실습), 팀장 주관회의 등 각종 정기적 시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행동관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행동관찰 Roleplay 경진대회, 행동관찰 OPL 작성, Refresh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별명은 참 그럴듯한 ‘백아나운서’다. 유명 아나운서와 이름이 같기도 하고 안전교육이나 각종 설명회를 가질 때 아나운서처럼 말을 또박또박 잘한대서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별명을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기 때문이다.

백 대리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돌기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고 이야기 상대가 돼 주면서 안전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어느 틈에 안전달인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LOTTE

HOTEL SEOUL

호텔롯데

설립일 1938년
 대표자 송용덕
 대표전화 02-771-1000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홈페이지 www.lottehotel.com

호텔롯데(LOTTE HOTELS & RESORTS)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텔그룹이다. 호텔롯데는 2018년까지 국내외 40여개 체인호텔을 갖춘 '아시아 TOP3 브랜드 호텔'로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안전이 자리하고 있다.

전 부문에 걸친 Quality-Up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더욱 높이겠다는 호텔롯데의 자신감과 긍지는 다른 아닌 그들만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노하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텔이란 원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종사하는 인원도 많고 개성도 다양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롯데호텔이 무사고 무재해 기록을 일궈내면서 안전한 사업장으로 고객만족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적잖이 놀라운 일이다.

고객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



‘안전 최우선’ CEO 의지 결실

1938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민간호텔인 ‘반도호텔’이 호텔롯데의 모체다. 1973년 창립 이래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호텔롯데가 ‘안전한 호텔’로 거듭난 것은 이제 약 4년이 돼 간다.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CEO의 의지가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다. 이곳의 안전노하우는 무엇일까.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안전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그 예로 꼽힌다. CEO나 주요 관리자 중에 호두알 만한게라도 고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서비스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었더라

악조건 속에서 호텔
롯데가 무사고 무재
해 기록을 일궈내면
서 안전한 사업장으
로 고객만족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
은 적잖이 놀라운
일이다.



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나 그에 못지 않게 희생이 너무 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기업들과 크고 작은 곳들 대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호텔롯데는 그 이전에 이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동종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011년 출범한 호텔롯데 환경안전팀은 서울호텔을 포함해 국내 전 체인호텔과 골프장 스카이힐 C.C의 안전보건실태 점검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한다”는 CEO의 의지가 전사에 게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무재해 운동이 전사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 10월 5일부터였다.

무재해도 무재해지만 호텔롯데 환경안전팀의 포상수여 실적도 눈에 두드러진다.



2012년 6월 서울호텔 사업장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24건의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자기제도 시범사업장 인정서를 받은 것은 작은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2월 동종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아 산업안전의 선도적 위치에 나서면서 안전보건공단과 MOU를 체결했으며 금년에는 5성급 4개 사업장(월드호텔, 제주호텔, 부산호텔, 울산호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호텔 조성과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해 산업재해 ZERO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국내 11개 체인호텔 및 스카이힐 C.C 4개점, 리조트 1개점과 파트너사 모두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 대규모 업무협약으로 이 또한 동종업계 최초였다.

그로부터 전 체인호텔이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무재해 운동 3배수(2014년 8월), 무재해 운동 4배수(2015년 4월) 목표를 달성했다.



‘호텔 발전의 모든 것은 안전으로 통한다’

이러한 무재해 달성과정에 상도 많이 받았다. 고용노동부 주최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2014년 7월 대기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그리고 12월 안전경영분야 최고 권위상이라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7월 서비스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맹경호 상무(시설부문장)가 산재예방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호텔롯데의 무사고 무재해 행진은 ‘호텔발전의 모든 것은 안전으로 통한다’는 CEO의 경영이 주효한 것 같다. 최고 결정자의 확실한 안전보건의식이 부지런한 안전관리자들을 통해 전 사원에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준수는 바로 무재해의 출발을 의미하므로 이곳에서의 기본교육 실시는 아주 철저하다.

전 안전관리감독자의 집합교육 및 회의가 연 12회 엄수되고 결정사항은 전 근로자에게 전파된다.



전 직원 사내 전산시스템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CEO의 의지대로 본사 및 서울호텔 전 직원에게는 사내 전산시스템(EP)을 통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전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안전의식 배양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안전에는 이곳만의 특별한 것도 있다. 무재해는 예방이 명약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제외한 순수한 위험성 평가로 투자한 비용이 2012년에 총 2억13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해 발생 제로화 달성 공을 인정받아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을 수여했다. 2013년 3700만원, 2014년에 3000만원, 2015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지속 수행

호텔롯데 서울은 사무직 160명, 현장직 1393명 등 총 1553명이 일하는 곳이다. 객실수 총 1,120실에 식음업장 9개, 연회장 13개소와 비즈니스, 휘트니스센터가 있다. 호텔롯데 서울은 여기에 국내 전 체인호텔 및 골프장들을 총괄하는 머리가관이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관리하기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특히 호텔업에 포함된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부족하다. 호텔 업종간에도 재해사례를 공유하지 못해 사고사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서비스업 특성상 주로 안전대행을 하며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파트너사의 위탁 경영으로 인해 재해비중이 증가하고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탓에 재해자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파트너사의 관련 종사자는 건물·객실청소, 세탁, 시설물 보수, 주차관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포돼 있어 언제나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호텔롯데는 최고경영자의 결단으로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 잠재 위험요인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으로 재해 없는 건강한 사업장 구축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파트너사 KOSHA 18001 인증 획득 전폭적 지원

파트너사에도 깊이 신경을 쓴다. 예컨대 16개 파트너사 중 안전관리가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 2곳을 선정해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올해에는 7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을 진행하고 있다.

파트너사도 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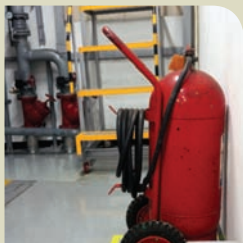


2014년 파트너사 중에 금연, 비만, 근골격계 위험군 발생이 높은 6개 파트너사와 모기업과 함께하는 건강한 만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전개, 2015년 3개 파트너사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해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재난현장 대응수준 마련

호텔롯데의 'Total 안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각종 재난 사고에 대처하는 선진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따르고 있어 그 실행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마치 현실처럼 화재, 침수, 지진, 테러, 붕락, 라이프라인 단절(상수도, 전기)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별 재난현장 대응수준을 마련하고 전 사업장이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에 의한 실전대비 가상훈련은 고객대피유도 및 구조는 물론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응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텔롯데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최고의 근로환경 제공 ... 안전수칙 준수 ‘안전의 원칙 지키면 무재해 낳는다’ 실증

호텔이란 원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종사하는 인원도 많고 개성도 다양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텔 그룹 롯데호텔이 무사고 무재해 기록을 일궈 내면서 안전한 사업장으로 고객만족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만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노하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한다”는 CEO의 의지가 전사에 전달됐다. 경영자는 최고의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준수에 충실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재해 운동이 전사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 10월 5일부터였다.

안전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안전이 열린다는 평범한 논리가 증명되는 현상이 호텔롯데다.

국내 체인호텔 및 스카이하일 C.C, 리조트와 파트너사 모두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한 대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에 도전한 것도 동종업계 최초였으며 그로부터 전 체인호텔이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차례차례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호텔의 무사고 무재해 행진은 ‘호텔발전의 모든 것은 안전으로 통한다’는 CEO의 ‘Total 안전’ 경영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호텔롯데 최고경영자의 말이다. 송용덕 대표이사 사장이 산재예방을 위한 의지를 천명
한 후 호텔롯데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하
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들어가 무재해라는
목동자를 얻고 있다.

Interview

대표이사 사장 **송용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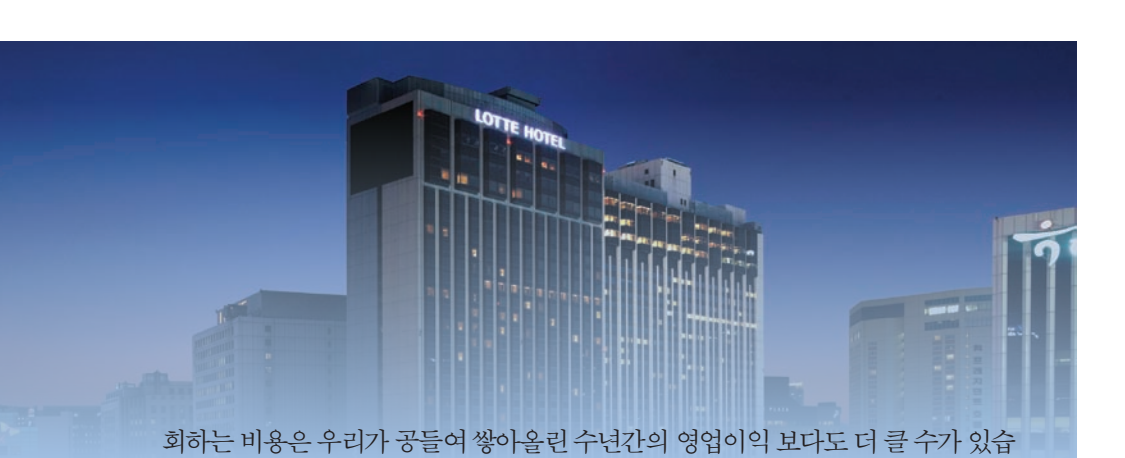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셋째도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이란 소방대피훈련과 같은 화재나 안
전사고에 대비한 물리적 훈련부터 위생사고
예방까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최우
선 과제입니다. 안전개념은 나 하나쯤이야, 오
늘 한번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대형사고로 이
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CEO로서 안전
을 점검하고 전 직원들에게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이 직원들에
게 전파되면서 전사적으로 실시된 무재해운동
이 큰 물결을 이뤘다.

“꼭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고
가 나고 이 사고로 실추된 호텔의 이미지를 만



회하는 비용은 우리가 공동여 쌓아올린 수년간의 영업이익 보다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호텔에 근무하는 임직원 개개인과 호텔을 믿고 투숙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호텔롯데가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것도 CEO의 이런 안전의식에서 출발했음직하다.

“우리는 식품위생관리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롯데호텔은 식품 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글로벌 체인에 걸맞는 식품 안전관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히 점검해서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4대약 척결에도 부정식품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부정식품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그 어떤 각종 대규모 외부행사에서도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최고경영자 다운 식품안전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진실로 위대한 조직은 어려울 때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힘든 순간을 인내하며 함께 나가는 조직일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건디고 나면 위기대처 능력 또한 크게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는 안전의 길이 그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이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재해로 가는 앞으로의 여정에도 부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랄 뿐입니다. 단순한 외형 성장만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아시아 TOP BRAND 호텔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도 목표도 안전이라면 글로벌 최고의 호텔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Key Man’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안전의 달인 | 박의연 안전관리자

호텔롯데의 총괄안전관리자 박의연 대리는 ‘키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에 결코 없어서는 안될 인물 박의연 안전관리자가 키맨이라는 조금은 우스꽝스런 별명을 얻게 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키맨은 영어로 ‘Key Man’이다. 항상 무거운 열쇠 30여개가 묶여진 열쇠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녀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호텔롯데의 무재해 기록 달성은 CEO의 안전의지와 관리에 힘입은 바가 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키맨이 열쇠꾸러미를 들고 다니며 곳곳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전을 일깨우고 다니는 공이 크다.

열쇠는 왜 들고 다니는가. 넓은 호텔 구내 곳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고객이 유사시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비상문, 안전장비 보관소, 창고 등 고객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점검해야 할 곳이 아주 많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거나 잠금장치를 열어야 할 경우 사무실에서 열쇠를 가져오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열쇠들을 차고 다닌다. 누가 뭐라든 그에게 중

요한 것은 오직 안전이다.

키맨 박 대리는 이제 호텔롯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넘어 퇴근하기를 한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돌쇠 같은 안전수호자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를 기피했다. 보기만 하면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므로 귀찮고 두려운 인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사방에서 그를 찾는다.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파급되면서 이제는 이 키맨이 꼭 필요한 ‘필맨’으로 아낌을 받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박의연은 넓고 큰 호텔롯데의 구석구석 구조를 잘 알고 있다. 쉼 없이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전 구내를 돌아다닌다. 그에게 부여된 업무가 안전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자격증도 탄탄데다 발로 뛴 경력도 그 누구보다 앞서니 그야말로 안전을 여는 안전의 달인이요, 키맨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그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으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상을 받는 등 수상기록도 많다.

직속 팀장인 조규철 환경안전팀장은 박의연 안전관리자가 호텔롯데의 안전을 위해 상하좌우의 중심에서 큰 몫을 해내는 중요한 요원이라고 했다.





2015 사업장 무재해운동 및 안전수칙 준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2015년 7월 7일(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학회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설립일 1967년
대표자 류정석 본부장
대표전화 070-5000-1000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623(남화동)
홈페이지 www.ewp.co.kr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본부장 류정석)는 지난 1일 행복나눔경영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노사합동 사랑나눔 감자캐기'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수확한 감자는 발전소 유휴부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해 노사가 한뜻으로 키웠는데 지난 3월 중순에 파종한 것이 400kg이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 친환경 유기농 사랑나눔 감자는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나눠 줬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향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이 울산화력 본부는 22년 무재해 사업장이며 이미 무재해 17배수를 달성하고 곧 18배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무재해 무사고 우수사업장이다.

우리는 안전 초일류기업



최고 경영자부터 근로자까지 전직원 안전무장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아주 특별히 이웃에 향토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면에는 주민안전과 직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류정석 본부장의 안전경영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화력본부는 실시간 HOPE 종합안전관리(Human·Organization·Process·Equipment) 프로그램을 추진해 괄목할 무재해 달성 사례를 낳고 있다.

이 울산화력본부가 2015년 무재해운동 및 안전수칙준수 우수사례 업체로 뽑힌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동서발전의 5개 화력본부 중 울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화력본부는 현재 국내 발전용량의 4%, 울산지역 전력 사용량의 32%를 담당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 추세에서 노후설비임에도 전력피크기간의 차질 없는 전력수급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은 물론 대용량 발전소 국내 최장기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고

재난사고 대비 초동 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시행으로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울산화력본부의 무재해 스타트는 지난 1992년 12월부터다.

그로부터 울산화력본부는 KOSHA 18001을 비롯 ISO 14001 등 중요한 안전인증을 다 받았고 상을 탄 것만도 부지기수다.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초일류기업 인증서'를 받았고 안전경영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산업재해예방 유공 국무총리상, 녹색경영 우수기업 대상 등 큰 상들을 수상했다.

타성 젖은 안전 안돼... 안전보건방침 제정

그렇다면 울산화력본부의 무재해 달성 노하우는 무엇일까. 여기는 발전소다.

발전설비 사업장은 고온·고압, 고소·협착 등 위험요인이 상시 존재하고 있으므로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해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Human·Organization·Process·Equipment 등 모든 위험요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류정석 본부장이 지난해 5월 울산화력본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안전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과 강조의 밑줄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난사고 대비 초동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시행으로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본위의 안전문화 정착과 유해위험성이 최소화되는 건강한 환경 조성은 류

본부장이 늘 현장을 순회하며 강조하고 당부하는 안전철학이자 실천의지와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사고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그 선봉에 울산화력본부 재난안전팀이 활동한다.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해 울산화력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시행 지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본부 전체 계획 아래 업무특성 및 사업계획을 고려해 각 처벌, 팀 단위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전 직원 위험성평가 교육은 비중이 크게 시행된다.

타성에 젖은 안전관리가 우려되고 자만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열외자 없는 안전의식 재무장을 강조한다. 물론 최고안전경영자 류정석 본부장 및 관리감독자의 솔선수범 아래 전직원이 체계적·효과적·지속적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본부장이 직접 안전보건 경영실적을 관리하고 피드백을 시행한다.





모든 위험요인 대비 사람 중심 안전활동 전개

울산화력본부의 안전노하우는 사실 따져 보면 ‘모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안전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불완전요소를 찾아내 대비하는 ‘Real Time HOPE Total Safety Management’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설물 중심 안전활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HOPE의 첫번째가 Human, 즉 사람이며 다음이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절차(Process)와 설비(Equipment)이다. 여기서 ①위험요인을 발굴하고 ②사고위험을 제거하며 ③잠재위험을 통제하고 ④사고시 실시간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무재해를 이끌어낸다. 울산화력본부의 전 직원 475명과 300여명의 사내협력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이곳 출입 작업자 및 방문객까지 모두가 4단계의 IECR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발굴(Identify), 제거(Eliminate), 통제(Control), 신속대응(Response)이다.

‘Promise 2015 기본준수 운동’ 전개

올해는 울산화력본부의 무재해 18배를 달성하는 해이므로 특별히 2015년도 무재해운동 전략과제를 선택했다. 전 직원 안전관리 실천체계 강화 ‘Promise 2015 기본준수 운동 추진’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발전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운영제’ 시행, 안전수칙 준수제도 정착, 유해·위험물질 24시간 특별관리, 유관기관 및 인근회사와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 365일 실시간 통합비상관리시스템 구축, 상설 안전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신축·운영 등이다.

상수도급업체까지 포함해 전 직원 안전관리 실천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마련하고 현장전반 실천·결과분석·피드백의 절차를 거치니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안전은 깨어 있다.

안전보건 전담관리팀의 조직도 확대했다. 안전파트 3명을 팀 13명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각 조직의 팀장, 차장, 직원 2명씩에게 안전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곳 안전수칙 준수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을까.



아주 작은 유해·위험요인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전현장의 동종 및 유사작업 모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만 작업재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Safety Alarm이 발령된다. 그리고 동종·유사작업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강 건너 불’의 경우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함이다. 발전소 내 과속·음주·주차위반자 및 안전장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자는 철저히 단속한다. 2번째 적발 시는 퇴출이다. ‘3진’ 아닌 ‘2 Strike Out’을 적용한다. 강력한 제재다.

안전 투자·노력 ‘다다익선’ 상설 안전체험장 운영

안전에 소홀하면 사고 후에 크게 후회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나 노력은 다다익선이다. 울산화력본부는 지난해 최신시설을 갖춘 안전교육장을 개장한데 이어 올해 상설 안전체험장을 신축·운영하고 있다.

작업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이수증으로 교육필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 스티커가 있어야 작업개시가 가능하다. 안전체험장에선 개구부 추락체험, 안전그네 체험 등 8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7대 특별작업 지정… 맞춤형 위험관리

울산화력본부는 모든 작업에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7대 특별작업을 지정해 맞춤형 위험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작업은 착수 전 안전검토를 시행해 작업 착수 전 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7가지는 특별하다.

7대 특별작업허가 및 맞춤형 위험관리 시행 종목은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운반작업, 중장비(중량물) 작업, 전기차단작업 등이다. 모든 작업은 착수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부서의 검토를 마쳐야하는데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작업 허가 요청 및 승인방법을 현장중심으



로 변경했다. 또 직원들은 누구든 안전위해요소 및 위험작업을 발견했을 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알리고 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처 및 팀단위로 성과급이 지급되며 개인단위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부여된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및 소통의 감성안전문화

안전도 안전이지만 무재해 무사고를 낳는 데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안전보건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울산화력본부는 아주 우수하다. 개인 맞춤형 보건관리를 시행하며 건강증진 문화를 조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밀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소음,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유해한 것들을 제거한다.

뛰니 뛰니 해도 ‘일’ 과 ‘가정’ 양립 및 협업·소통을 위한 감성안전문화를 구축하는 데는 울산화력본부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울산화력본부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실시간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깨어있는 안전이 무재해 가져온다’ 신념 다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12종을 갖추고 사전훈련을 한다.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이곳은 한마디로 ‘모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안전의 기본원칙에 충실함으로써 무재해 무사고를 일궈낸다.

울산화력본부의 안전노하우는 사실 따져보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불안전요소를 찾아내 대비하는 ‘Real Time HOPE Total Safety Management(실시간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가 핵심이다. 이는 시설물 중심 안전활동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첫 번째가 Human이다. 사람이 안전의 주체이며 여기에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절차(Process)와 설비(Equipment)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먼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위험을 제거하며 잠재위험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안전이 무재해를 가져오는 원리다. 사내협력업체도 포함해 근 800명에 이르는 울산화력본부의 전 직원은 물론이고 이곳 출입 작업자 및 방문객까지 모두가 4단계의 IECR을 준수하는데 열외가 없다는 것이 이곳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만하다.

이곳 류정석 본부장은 울산화력본부만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지금까지의 안전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과 강조의 반석을 구축했다. 재난사고 대비 초동 대응체계구축 및 위기 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시행으로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본위의 안전문화 정착과 유해위험성이 최소화되는 건강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CEO의 안전실천의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안전의 모든 것은 최고 경영안전관리자의 실천의지와 안전노하우에 의해 달라진다. 류정석 울산화력본부장은 22년 무사고, 무재해 17배 기록 달성에 대해 먼저 본사 한국동서발전(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배려와 안전의 인간 존중'을 강조한다

Interview 울산화력본부장 류정석

직원들과 스스럼없는 대화 즐겨 사람 중심 배려 · 소통이 무재해 원동력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로 우리 한국동서발전 전 직원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현장에 설비를 설치하고 운전하며 작업을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중심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장구나 안전관리 추진기법 등은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큰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산업재해는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에서 발생되며 모두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직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화력본부가 무재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존중 기업문화 때문입니다.”

류정석 본부장이 이끌고 가는 울산화력본부

의 무재해 기록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

안전·보건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류 본부장과 일문일답을 나눠 본다.

❶ 안전에 대한 본부장의 특별한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까.

— 발전설비는 고온·고압·고정밀 설비집합체로서 사람·조직·절차·설비 등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무재해가 직원들의 최우선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동료, 함께 일하는 협력사 직원 상호간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개선되며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❷ 귀사가 특별히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산업재해는 회사는 물론 개인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산업재해의 주원인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울산화력본부가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를 구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조직·절차·설비 등 모든 불안전 요소에 대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위험을 제거하며 잠재위험을 통제함은 물론 사고시 신속 대응하는 실시간 종합안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발전사 최초의 KOSHA 18001 및 OHSAS 18001 통합인증, 통합방재센터 구축, 안전체협교육장 운영, 안전관리제도(안전우선회의, Work Stop, Safety Alarm, 2 Strike Out), 안전 ABC Rule 5대수칙 운영, 동료 사랑카드 운영, 불시 비상대응훈련, 외부 안전분야 전문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 추진은 물론 협력업체에는 안전교육과 안전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해 협력업체도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고 있습니다.

❸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통을 잘해야 회사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선배들로부터 들어 왔고 경험상 소통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것 모두가 불완전한 소통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전공, 직급,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토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과 열린 생각으로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활력경영’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안전순시 중에 현장에서 만나는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기본과 원칙 지키는 ‘안전파수꾼’

안전의 달인 | 신원식 재난안전팀 안전과장

회사경력에는 20년이라지만 안전관리를 담당한 지는 5년밖에 안되는 울산화력본부 신원식 과장을 두고 얼핏 ‘안전달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일단 그를 한번이라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회사 내에서도 그의 안전관리 능력은 이미 명성이 자자한데 그도 그럴 것이 원칙을 지키는 데는 한치의 빈틈을 두지 않는다. 그는 확실히 보통 사람과 다르기에 ‘안전’이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그 만의 능력을 충실히 발휘하고 있다. 그에게 달인이라는 칭호보다는 회사의 ‘안전파수꾼’이라는 소리가 걸맞다.

실제로 신 과장은 울산화력본부가 국가기반체계가 안전행정부 장관상(2013년), 무재해 사업장 17배수 달성(2014년),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달성(3년 연속) 등 줄줄이 큰상을 차지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그는 짧은 시간동안에 나름대로의 뛰어난 수준의 안전역량을 쌓았다.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했을까.

“그동안 해왔던 설비운전업무, 정비업무, 공무업무 등의 경험이 안전 업무와 동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곳이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안전과 성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원리를

제가 터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칙을 모두에게 전해주려 뛰어 다닙니다. 본부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안전의 원리를 저는 널리 전하려 뛰어 다니는 겁니다.”

신 과장은 “기본과 원칙의 준수로 모든 사고는 예방가능하다”면서 사고의 발생유무는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인다. 재능이 아니면 성실성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안전관리를 펼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현장에서 신 과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안전활동은 협력업체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비작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소규모 인력운영으로 위험수준이 낮기 때문에 협력사 안전관리수준을 울산화력본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간 신규 상주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KOSHA 18001 인증비용을 울산화력본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도 지적보다는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상주협력사 모두가 KOSHA 18001을 구축했고 무재해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 과장에게는 ‘독수리5형제 아빠’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5남매의 아버지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녀사랑이 대단하기로 소문났다. 그는 그 가족사랑으로 현장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곳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그는 달인이 아니라 회사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그 ‘달인’이다.



항공우주사업본부

설립일 1976년
대표자 함명래
대표전화 1588-2001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홈페이지 kr.koreanair.com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세계 초일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혁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 혁신의 바탕에 안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종사자들은 제일 값진 '오늘'이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안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중 안전 빈틈은 없다



혁신·노력 멈추지 않는 초일류 기업 지향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첫 발을 뗀 1976년 그때만 해도 한국은 항공우주 산업의 불모지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 세계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수준의 회사로 발전하기까지에는 이곳만의 안전 노하우와 투철한 안전의식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는 국내 최초로 500MD 헬리콥터를 생산했고, 이어 개발한 F-5 전투기 제공호는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중형 기동헬기인 UH-60 헬리콥터 및 각종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큰 힘을 내준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늘을 나는 항공기라면 안전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안전을 지키는 이곳 항공우주사업본부의 특별한 노하우는 무엇일까.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세계 초일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혁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사전에방적, 사전예측적 안전관리가 그 기본이다. 직원 개개인은 모두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실천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그 혁신의 바탕에 안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종사자들은 제일 값진 ‘오늘’이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안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항공기 및 위성체계개발 종합업체로 지금은 무인항공기 개발과 함께 위성체 및 발사체 등 우주부문 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종업원 수 2707명의 대형업체여서 웬만한 안전노하우를 갖추지 못하면 무재해를 기대하기 힘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이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사업장 무재해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성과지표에 연계한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사전예측적 안전관리가 그 기본이다. 직원 개개인은 모두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실천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안전위험요소 보고제도

이곳의 작업공정은 총 353개 3774항목이나 된다. 여기에 KRAS 기법을 적용해 위험성 평가를 한다. 예컨대 크레인 기사와 작업자 간의 수신호 미숙으로 항공기 손상



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항공기 충돌피해에 해당된다. 작업자들의 창상이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허리부상 등도 발생빈도와 위험강도를 참조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물질에 MSDS 보유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 위험물 관리를 한다. 취급 및 운반 안전절차를 부착하고 시설환경 프로그램으로 유해·위험물 취급을 운영한다. 유해·위험물은 20개소의 전용 보관소가 따로 있다. 항공유 역시 유독물·위험물에 속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안전위험요소 보고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안전보고를 통해 사고, 준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적절한 상태나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보고의 종류는 전 직원에 의한 자발적 보고, 지상안전보고서(GSR · Ground Safety Report) 작성, 아차사고, 안전제보제도 및 본부 안전제보제도 등이 있다. 본부 안전제보제도는 본부 내 안전저해요소를 발취해 사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때 시정조치 주관부서를 지정해 관리케 함으로써 원활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전제안 및 개선활동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담당한다. 군용기 공장이라면 아무래도 추락재해 위험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추락방호조치, 추락방지조치, 추락억제시스템(Fall Restraint System)이 적용된다. 여기에 One Point 위험예지훈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Risk Check List를 작성하고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리더와 멤버들이 상의한다. 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낸다. 고소작업 중 추락·전도에 의한 손상, 중량물 이동 중 충돌 및 인명 손상, 이동용 차량장비 작동 및 운전 중 항공기 및 인명 손상, 무면허 운전 및 과속, 절단 및 전동장비 사용 중 인명 손상, 방사선피폭 비상상태 등 모든 RISK에 따른 비상대처 매뉴얼을 작성하고 확인한다.

항공기엔 태풍이 천적이다. 태풍에 대해서는 ‘태풍대비 D-DAY 기준’을 마련하고 팀별 점검사항을 재확인한다.

안전점검은 3중이다. 안전순찰, 안전 Audit, 내부심사를 하는 어느 작업장이나 비슷하겠지만 이곳은 그 강도가 높다. 동절기, 해빙기, 태풍대비 안전점검은 기본이

다. 사고 잠재 위험 상존지역 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을 하고 안전보건규정 미준수 및 위반시 엄격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검사원 GPE활동도 적극적이다. 테크센터 현장 품질검사원을 활용해 작업장 안전위험요인 및 잠재적 장애 요소를 사전 제보하고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절차는 이렇다. 품질검사원의 안전제보 후 본부 안전팀의 현장확인에 이어 부적합 시정 요청서가 발행된다. 해당 부서에서 조치완료 회신을 하면 본부안전팀이 조치완료 현장확인으로 끝을 낸다.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함께 무재해를 이뤘다.

안전정책개발과 회의

안전의 힘은 정책에서 나온다. 효율 좋은 정책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회의가 충실



해야 한다. 안전보안월례회의(monthly safety & security meeting)는 매월 각 공장·부서 안전담당들이 참석, 본부별 안전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안전보안팀장회의는 안전담당부서장 주재로 각 공장 부서 주무팀장들이 참석하며 안전문제 및 정책 모니터링, 정책결정의 기능을 한다. 안전보안임원회의는 연 1회 실시되며 본부장 주재로 각 공장 부서장들이 참석해 종합안전계획 심의 및 인준·대책 수립을 논의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해 실시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는 항공우주사업본부와 사내 협력업체 간의 안전회의체로 안전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협의한다.

비상사태 대응 및 자체 소방대 운영

항공기 조종사 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비상대피훈련을 위한 자체 소방대를 갖





쳤다. 인력은 36명이며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10대를 구비하고 있다. 강서소방서 및 공군, 한국공항공사 등과 소방 응원협정도 체결했다. 항공기 조종사 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은 매달 실시한다. 밀폐공간 질식대비 구조훈련 및 공기호흡기 훈련은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이는 특히 CO₂ 소화설비 설치장소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및 위험물 누출 대비는 물론 폭발물 저장소 비상대피 및 대응훈련도 철저하다.

안전회보 발행과 안전장려금제도

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사업장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정책에도 정성이 보인다. 각종 안전지시를 전달하고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안전회보를 발행한다. 안전담당부서는 다양하게 접수된 사내의 안전정보를 분류하고 중요한 홍보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발행, 배포한다. 특히 안전측면에 관련되고 임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특별히 다룬다. 이밖에도 안전담당부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안전지시를 발행한다. 또 작업자들의 안전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가중치를 적용해 포상을 하고 격려하는 안전장려금 제도(SPIP)도 운영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채찍이라면 달콤한 당근의 포상도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오래 지켜온 전통의 안전기법 구사 잠재 위험요인들 사전 파악해 제거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달성한 무재해 25배수는 전국 동종업종(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및 부산지역 제조업 중 최고의 기록이다.

전 종사자의 투철한 안전의식과 효과적인 안전프로젝트의 운영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수 27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에서 하나하나 무재해의 구슬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정비, 점검의 생활화, 안전수칙 준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문화 정착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오래 쌓은 안전활동 경력이 자체적으로 그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한 것을 개발하기 보다 오래 지키고 있는 그곳만의 전통적 안전기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의 안전을 지켜낸다는 것은 개개인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구심력이 필요한데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잘 소통하고 있는 조직운영이 그 바탕이 되는 모습이다. 매월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고칠 것을 함께 개선하는 것은 이제 관습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목해 볼만한 안전포인트라면 '안전위험요소 보고제도'를 꼽을만하다.

안전보고를 통해 사고, 준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적절한 상태나 잠재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의 방식과 종류가 다양하다. 전 직원에 의한 자발적 보고, 지상안전보고서 작성, 아차사고 사례발굴, 안전제보제도 및 본부 안전제보제도 등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것이 이것이다.

안전저해요소를 발체해 사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때 시정조치 주관부서를 지정해 관리케 함으로써 원활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뀔으로써 주변이 변화할 것이고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다면 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며 사고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위기

Interview

항공우주사업본부장 함명래

“안전의 기본은 사람에게서 비롯돼 무재해 역시 사람의 능력에서 나와”



대응은 결국은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명래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안전의 기본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무재해를 이루는 것도 역시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안전철학을 갖고 있다. 안전을 이해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안전이라면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을 독려한다.

☉ **안전·보건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 제안 · 제보, GSR(Ground Safety Report), 비밀보장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사고위험 요인,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등 개인의 아차사고사례를 발굴·포상함

으로써 안전의식의 함양과 사고예방문화 조성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췌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모여 현장의 어려운 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해 서로 공생하는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❶ 안전에 대한 CEO의 특별한 개발 노하우가 있는지?

—‘안전은 실천’입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근로자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자가 안전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안전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❷ 직원들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소통의 효과가 있는지요.

—임원들부터 소통하고자 매월 안전임원회의를 열고 본부장 및 전체 임원들이 모여서 각 부·공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내 소통 게시판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부서·공장장과 현장 직원들과의 점심시간 함께하기, 산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공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고 매월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칠 것을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❸ 특별히 무재해를 기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대단한 실적을 놓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업장이 달성한 무재해 25배수는 전국 동종업종 및 부산지역 제조업에서 최고의 무재해 달성 기록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회사로서는 큰 영광이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의 결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❹ 함께 하는 이웃과 사회에 전하고 싶은 안전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판교 신도시 환풍구 추락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임을 뉴스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매뉴얼의 정비, 점검의 생활화, 안전수칙 준수, 안전정보·제안의 활성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위험요소 탐색하는 ‘탐정’

안전의 달인 | 최중윤 안전관리그룹 안전관리자

현장 곳곳 누비며 불안전 요소 살피는 ‘탐정’
‘안전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는 탐정을 닮았다.

지난 2009년 11월 ‘안전관리자로 소방 및 화재예방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어언 12년에 걸친 안전관리자 경력을 쌓으면서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전반에 걸친 토털안전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특별한 직장 별명이 없는 것은 안전이라는 특별한 업무에 휩싸여 있는 탓인지 모르겠다.

자신은 미처 생각지 않고 있다지만 그가 걸을 때 그의 시선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다. 무슨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려는 것이다.

현장순찰시 마다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회사 내는 물론 회사 밖에서도, 또 업무가 끝나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얼마전 인기를 끈 영화 ‘탐정’이 개봉되고 나서 동료들은 그를 보고 탐정이라 불러주기 시작했다. 걸맞는 별명은 아닐지라도 그럴듯한 면도 없지 않은 까닭이다. 안그래도 자체 소방대를 관리하고 소방훈련을 담당하다 보니 구급차나 소방차의 사이렌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라는 버릇도 생겼다. 무슨 사고가 난 것인가 하고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안전관련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고 메모하는 것도 그의 일상 중 하나다. 이 자료들은 정리했다가 안전교육 시간에 교육교안으로 사용한다.

그는 가정과 회사에 모두 충실하다. 회사의 안전을 위해 회사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대단한 안전실적을 쌓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핵심인물이지만 가정에서도 신뢰 가득한 가장이다. 그는 안전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확인하는 안전인인 것이다.

그는 오늘도 주변을 두루 살피며 출근하고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사방에 전파하려고 열심히 땀다. 주변을 열심히 살피가며 그는 안전을 찾는 동료들과 함께 어느덧 탐정을 닮아가고 있다.



GS 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설립일 2000년
 대표자 손영기
 대표전화 032-320-3204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1
 홈페이지 www.gspower.co.kr

GS파워(대표이사 손영기)는 친환경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2004년부터 환경, 보건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인 EHSQ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lean Energy Frontier for Better Life”의 비전으로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친환경경영의 성과로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안양열병합발전처와 함께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친환경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이 안전의식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좋은 환경은 안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위험 옆의 안전은 없다



조그마한 빈틈도 안된다 전직원 안전으로 하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안전에 대해서라면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재해 운동 개시신고를 한 후 2013년 5월 무재해11배, 2014년 11월 무재해12배를 달성하는 등 안전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무재해 운동 추진 성공사례 우수업체로 상을 받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수상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꾸준히 무재해를 일궈내면서 친환경 사업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자부심이 이곳 발전처장을 비롯한 전 근로자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꾸준히 무재해를 일궈내면서 친환경 사업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자부심이 이곳 발전처장을 비롯한 전 근로자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위험 옆에 두고 안전 유지하기는 어불성설

GS파워는 총 950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은 계약을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한편 발전소와 소각장에서 생산된 열은 부천과 안양 주변지역 약 30만3000가구에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GS파워의 2개 발전소 중 하나인 부천열병합발전처는 가스터빈 100MW 3기와 150MW의 증기터빈을 가동시켜 450MW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부천 상동·중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 삼산지역 등 부천 및 인천 15만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곳 발전 현장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취급할 뿐 아니라 다량의 유독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를 부를 위험성이 크다. 이곳 여건상 안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10여년간 무재해 기록을 놓고 있는 것은 이곳만의 특별하거나 성실한 안전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사전에 찾아내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작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 및 임직원에게 신속히 안전정보를 전달해 늘 위험에 대비토록 한다. 이를 위해 대형 옥외전광판이 마련돼 있고 TV모니터에서 계속 안전정보를 내보낸다.

STOP(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제도

작업전에는 안전회의가 필수적인데 안전 동영상상을 시청하고 사고사례를 공유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리고 다음단계가 현장 잠재위험요소를 발굴해 사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가 STOP(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제도다. 안전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다. 작업자들은 모두 STOP카드를 작성하는데 이를 분석해 작업자의 불안정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아차사고 가능성 및 잠재위험을 발굴하거나 우수한 STOP카드를 작성하는 경우엔 포상으로 격려한다. 협력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순찰(Safety Inspector)제도

작은 재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팀장급으로 구성된 별도점검반을 구성, 불시점검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사고예방을 위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Safety Inspector 운영이다. 여기서 적발사항이 발생하면 최초적발 시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사내강사의 특별안전교육(2시간)을 실시한다. 2회 적발 시엔 경고





조치 후 발전처장 및 상무에게 직보를 올리고, 3회 이상 적발 시 직원의 경우 인사 상불이익이 돌아간다. 협력업체라면 3진아웃제도를 적용해 영구퇴출 시킨다. 발전 현장은 위험한 작업장이므로 일반방문객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모두 안전비디오 시청 교육을 실시한다. 회사 내 일반 방문객 및 작업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요령, 안전작업절차 등 현장출입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안전지수(Safety Index) 개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엔 이곳만의 특별한 안전관련 정량적인 평가제도가 있다. 다름 아닌 환경안전지수(Safety Index) 개발이다. 이 환경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임원 및 처장 평가기준은 결과지표로 측정, 10점을 배정한다.

팀장의 평가기준은 결과지표(5점), 과정지표(5점)로 구성된다. 그리고 팀장은 관리범위에 따라 A군(생산)/B군(사무)으로 구분하고 있다. 4등급이라 함은 S, A, B, C

로 평가하는 것인데 예컨대 처장과 임원의 경우 목표달성이면 S, 목표달성 90%미만이면 C를 받는 등이다. 이 평가결과는 인사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사고조사기법 RCA(Root Cause Analysis)

설비 및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아차사고나 설비사고의 발생원인을 숙지하고 있다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위험성과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열배관, 협력업체 화상사고나 안양 GT사고 같은 것들이다. 이곳 부천 발전소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조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RCA 외부전문가를 초빙,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총 26명의조력자(facilitator)를 양성해 활동케 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원인을 발견해 시정조치요구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HOT TAP의 경우 감독자가 작업지시를 할 때는 작업자가 초보자이건 경력자이건 HOT TAP절차에 따라 작업토록 확실히 지시하지만, 매 작업지시 마다 HOT TAP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절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화기작업 허가증에 첨부토록 교육하고 있다. 작업지시를 받는 작업자는 HOT TAP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작업위치와 여건을 재확인한다. 만약 작업 시



절차에 따르도록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감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SHEQ 시스템 효율화

SHEQ 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Quality)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수행 방법, 절차, 책임과 권한 등을 문서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될 경우 지속적 추적관리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운영, 관리 활동결과의 지속적 공유가 어렵다는 단점이 보인다.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도 따른다. 그래서 SHEQ 정보 통합 관리를 전산화해 SHEQ시스템 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SHEQ시스템의 내부감사를 통해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은 개선, 권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KOSHA18001, OHSAS 18001 등 시스템의 부적합사항을 찾아내 개선조치를 했으며 우수 내부 심사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부서별 우수 개선사항(Best Practice) 발굴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내부심사자를 10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고, Pool운영으로 개인업무부담 및 내부심사원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안전강화에 도움이 된다. 내부심사자의 심사일은 개인 업무일정 중심의 상호 조정토록 하고 있다.

유독물 유출 등의 비상 대비훈련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열을 다루는 곳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이 절실하고, 다량의 유독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로 유독물질의 유출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이곳의 유독물 유출이나 화재 등 사고에 대한 비상 대비훈련은 세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철저한 반복훈련을 거듭한다. 화재발생시?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불이야’를 외치고 평소 소재위치를 익혀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이어 발전소 중앙제어실의 긴급 연락 및 관할소방서 신고 후 신속히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유독물 유출 시에 대해서도 훈련이 잘돼있다. 사고가 나면 이미 숙지해둔 유독물유출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 시는 방독면이나 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피부 노출을 방지한다.

유독물이 유출되면 비상대응팀으로 비상시 현장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안전장치로는 누출감지기(4개소), 유독물 유출방지턱, 스프링클러 등이 마련돼 있고 방독면, 화학보호복, 내화학장화, 내화학 장갑, 보안경, 중화제, 모래주머니 등 안전장비를 현장에 비치해 놓고 있다.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도입

TPM은 전사적인 생산설비 보전활동이다. 전 직원이 설비 보전업무에 참여해 설비고장, 불량 및 재해의 제로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되 안전을 강화해 기업의 생산체질을 변화시킨다. 공정안전자료는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절차서 및 지침서 변경에 따라 MSDS,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사양, 변경관리에 따른 도면수정, 공정기술정보 등을 계속 보완하고 전 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발전운영팀, 기계기술팀, 계전기술팀에 152개의 안전운전지침서가 전산상으로 등재돼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법적사항 및 사내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준수평가 보고서를 매 분기 마다 올리도록 절차화하고 있다.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유해, 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설비별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위험등급이 높은 설비 총 82개소를 발굴해 개선계획을 수립 진행 중이며, 총 300개의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설정 점검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다.

위험작업 7개 항목의 해당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설비팀장과 교대그룹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준수여부를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절차 미 준수 시 경고 조치한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예산이든 정신이든 안전 투자 아끼지 않아 정확한 원인 규명 재해방지로 무재해 실현

발전을 하고 열을 생산 송출하는 이곳 열병합발전소는 운동 위험투성이다. 용접, 커팅 등 화염, 스파크를 일으키는 화기작업을 비롯 산소부족에 유해 · 위험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장비를 이용해 깊이 땅을 파는 굴착작업, 50℃ 이상 유체를 취급하는 고온작업 등으로부터 안전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긴장할 수 있는 훈련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환경조건이 이러하니 임직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이며 철저한 PS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외부 전문강사도 초빙해 PSM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항시 화재 폭발 및 화학 물질관리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곳 작업자들의 위험에 대한 반응도는 타에 비해 예민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안전 최고경영자의 특별한 관리와 세밀하게 구성된 안전관리시스템 이 작업자들을 지키고 있어 마치 군기가 잘 잡혀 있는 것처럼 위험에 대한 대비의식이 투철하다. 작은 실수, 앓차사고 하나의 빌미라도 생기지 않게 유해 · 위험설비의 가동은 사전 안전점검에 빔을 두지 않는다. Checklist 에 따라서 점검하고 단위기기 별로 시운전을 거친 후 개선항목을 조치한 후에야 다시 종합시운전을 시행할 정도로 설비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는 부천발전처의 안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설비고장이나 경미사고도 어김없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매년 부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유독물 유출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강평 후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있다. 행여 독극물이 유출될라 염산탱크 주변 누출 보강공사를 했고 염산주입펌프 및 노후배관을 교체했으며 염산탱크 상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염산 누출 시 주변의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옥외엔 NG HTR Area 가스 감지기도 설치했다. 전 임 · 직원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에 대한 모든 논리에 충실한 것이 이곳의 무재해를 낳고 있다. 예산이든 정신이든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성공을 거두는 전형적 우수사례다.

⊕ 평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작업에 임하기 전 주변을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잠깐 동안의 이 행동이 커다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처장 **최동욱**

작업 전 잠시 생각하는 여유가 사고 막는다 안전 확보 과감한 투자가 무재해 결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급한 마음, 혹시나 하는 방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자세는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만큼 설비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전 직원이 현장의 위험요소와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잠재위험카드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 내용을 수합, 저와 안전팀 관계자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않고 현장의 안전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그 효과를 사전에 측정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에서는 비용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안전조회나 안전의 날 행사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지시가 아닌 토론식으로 격이 없이 말합니다.

현장에 돌아보니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들의 의견과 생각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원조 안전달인

안전의 달인 | 김현철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부장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합니다
사고는 사고 사례를 통해 배워라”**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설립과 함께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김현철 부장.

15년 동안 오직 안전업무만 담당해 온 그는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원조 ‘안전달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방송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매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정해 ‘안전달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그 때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부장을 추천했고 고용노동부도 별 다른 이견 없이 그를 달인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만큼 안전에 있어 그의 열정과 노력은 이미 주변사람들에게 검증됐다. 김 부장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항상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자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치지 말고 즐겁게 퇴근하자는 말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 조언이 함축된 말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조언을 하면 듣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불안정한 방법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김 부장처럼 건강하게 돌아가자는 한 마디에는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된다.

또 하나 직원들에게 사고는 사고사례로부터 배우자고 강조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 뿐인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사업장내 사고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안전 교육 과정에서 사고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MERCK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설립일 1987년 8월 5일
대표자 미하엘 그룬트
대표전화 031-670-830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50-14
홈페이지 www.merck.co.kr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공장을 지어 이전한 것이 1998년 2월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재해없는 안심일터를 일궈 올 1월 무재해 16배수 인증을 받았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무재해 사업장도 있지만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역시 안전한 일터에의 목표는 원대하다. 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이루는 무재해 기록은 적어도 2030년까지 무재해 30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안전문화



빈틈없는 점검관리로 안전수칙 준수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를 생산하는 한국머크는 종업원수 574명의 중견기업이다.

연간 생산량이 1만6000톤이나 되는 제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용 화학약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물 4류로 분류되는 위험물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안전관리는 철저하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무재해 사업장도 있지만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역시 안전한 일터에의 목표는 원대하다. 무재해 기록은 적어도 2030년까지 무재해 30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문제점 개선 기술지원 철저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안성공장 준공 이천 직후인 1998년 7월이다. 그로부터 2000년 7월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2003년에 공정안전보고서(PSM)에 이어 2005년 9월 OSHAS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2009년엔 무재해 안전한 일터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삼성협력사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안전시스템은 공장장 이경재 전무와 무재해추진 기술지원부서(Engineering Technical Service, Safety) 추상수 부장이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무재해 추진 및 달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지닌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현황 분석에 이어 개선 조치에 완벽을 기한다. 현장 개선을 위한 검토 및 기술 지원에 철저한 것이 이곳의 안전노하우라 할만하다. 무재해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한 바탕에는 실효성, 유효성 평가, 적용성을 최대화하는 이곳만의 특별한 교육훈련이 있다. 그렇다면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불안정한 행동을 제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안전구호를 만들었다. 4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빈틈없는 점검관리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 제거, 현장무결점 추진의 성과를 이끌어 낸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목표한 안전문화 형성을 위

해 안전문화 정착 평가지지를 개발하고 있다.

개선제안제도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특별한 것 중 하나는 무(無)의 원칙, 신(信)의 원칙, 다(多)의 원칙을 내세운 개선제안제도다. 아차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아차사고 조사-재발방지 교육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지표평가 개선효과를 이끌어 낸다. 아차사고 보고는 현장 불안전 위험요소를 수시로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의 사고사례로 ‘배우는 안전’을 생성한다. 특히 동일사고 예방을 위한 Practice 활용은 안전사고 예방에 의한 비용 절감을 가져 온다.

4대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작업 전 안전점검은 필수다. 이를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 및 4대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사고 예방, 근로자 보호 및 건강 유지, 불안전행동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행사 때는 대형 현수막을 게





시하고 전사적 안전구호가 총동원된다. 이곳에서는 각 팀별로 안전구호를 만들어 수시로 다짐한다. 팀별 구호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색색이다.

제안 및 아이디어 보상

생산1팀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Ancinary 아자~ 짹! 짹! 짹!”을 외치면 생산 2팀은 “안전, 확인, 좋아~ 좋아~ 짹! 짹! 짹!”으로 응수한다. 이밖에도 “PR, 안전~ 안전~ 안전~ 짹! 짹! 짹!”, “PR주의~ PR안전~ 짹! 짹! 짹!”, “PHPS~, Perfect Health~ Perfect Safety~ 좋아~” 등 여러가지다. 안전담당인 기술지원부의 구호는 “지킴이~ 안전! 점 검! 확인!”이다. “안전없이 행복 없고 안전없이 품질없다. 좋아 좋아 좋아”도 있다.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외치는 구호는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잠재의식 강화, 동료애 형성, 일체감 형성,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공장 안전문화 형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작업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이 유지되도록 스스로 행동하게 되리라는 기대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에 대한 관심사항이 증진되고 관련 대화를 하게 될 뿐 아니라 실수를 교



훈 삼아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가치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곳의 'QC 검사 및 보증 Retain Sample 줄임' 제안은 연간 1억4000만원의 경비 절감효과를 발생시켰다. 이곳의 제안에 따른 개선 효과는 아주 뚜렷하다.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에는 충실한 보상이 따르게 돼 참여도가 향상됐다. 위험요소 제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공정불합리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에 따른 경영 성과 개선효과를 누가 마다할 것인가. 지난해 참신한 아이디어 보상과 개선에 따른 비용절감액이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보다 값진 것이 안전확보 경영 성과 개선이라고 하겠다.

잠재위험요소 제거 위험성평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고 보면 잠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먼저가 HAZOP기법을 활용하는 공정안전보고서다. 화학공정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4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두번째는 4M/What If 위험성평가의 OSHAS18001이다. 화학공정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운영 및 공정 위험성을 평가한다.

각 부서장이 매월 현장 정기 순회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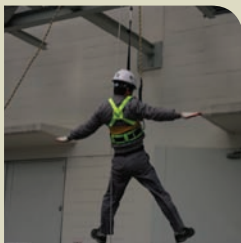
신규 공정, 장비, 업무 도입시에는 사전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평가 3개월 후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매년 말에는 정기평가로 지난 3년분 평가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관리는 등급에 따라 달리한다. 5~6등급은 수용하되 5등급은 6등급으로 하향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4등급은 반드시 개선조치를 실시해 5~6등급으로 하향시키는데 단 1~3등급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주관부서에 등록해서 관리한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매월 1회 각부서장이 현장을 순회점검하는 월별 manager 점검이 있는가 하면 매월 1회 ESH 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ESHA 위원회 점검도 실시된다. 또 매월 1회 점검팀이 가구부서를 점검하는 3정5S 점검도 있다. 이를 통한 개선사항을 보면 2013년 329건, 2014년 314건 등 최근엔 년 300건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런 점검을 통해 어떤 효과를 봤을까. 예컨대 탱크롤리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대를 설치했더니 사고방지는 물론 작업자들의 정신적 안정에 따른 업무 효율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폭전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은 안전충전함에 보관토록 했다. 폭발방지지역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제거해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별안전교육 위기대응 워크숍

위기대응 워크숍은 연 1회 실시한다. 정기 안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신규채용자는 배치 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직 변경자는 2시간 교육을 실시하지만 위험보직 변경자가 되면 대상자별로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게 한다. 부서별 관리감독자 역시 16시간 교육을 받는다. 어떤 교육이든 평균점수 90% 미달이면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이중 위기관리대응 워크숍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화재, 폭발, 누출, 테러,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히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팀은 사업장별로 2개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작업 절차준수를 위한 교육도 있다. 위험 작업시작 전 교육을 실시하고 절차준수 서명을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업 중 점검을 하고 여기서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단 및 안전교육 재실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이곳에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법규 개정 여부 파악이다. 안성 Site 운영상 관련되는 제 법규를 매분기별로 파악토록 하고 있다. 업무 담당자가 관련법의 개정여부 및 회사와의 관련여부를 파악해 문서화하고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무재해 달성에 따른 유무형 효과, 근로자 보호, 경영성과 개선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최고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한마음 안전수칙 준수 · 지속적 위험요인 개선활동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 비해 여러가지 복합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무재해 16배를 달성하고 나아가 무재해 20배, 30배수 달성의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수칙 준수 및 지속적 개선에 최고 안전관리자인 공장장부터 현장 근로자 들까지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대 안전수칙 준수의 요체는 첫째가 교육인데 정기안전교육(연 12회 실시), 공정안전교육(연 52 회), 관리감독자 교육(매년 6명) 등의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도 우수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큼 충실하게 짜여 있다. 개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후 증상조사표를 작성, 분석 결과를 관리하는 한편 포장공정 중 충전이 완료된 용기를 빈번히 들어 올림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작업자 어깨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Balance Arm을 도입, 작업공정을 개선한 것도 근골격계질환 을 키우지 않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빈틈없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 부서별로 관리하며 매일 부서별 업무회의 시간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공정안전 교육시간에 '보호구사용 표준' 등 교육을 빠뜨리지 않고 ESHA 회의 시간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한다. 필요한 곳곳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 안전 의식의 결핍을 막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현장 필요개소에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현장 물질별 MSDS 요약본을 게시하며 작업현장 MSDS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무재해 달성-안심일터가 우연히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룹 안전문화 정착, Audit 결과 지속 적 개선, 안전구호 활용, 위험성 평가 및 점검 지도 지속적 실시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등 갖은 예 방책으로 사고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안전으로 가는 길을 하루하루 착실히 다지고 있다.

“안전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듯 안전 또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 안정된 안전 풍토가 조성돼야 근로자들이 안전에 순응하고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nterview

전무(공장장) 이경재

안전은 곧 일상생활과 같아 상시적 의식에서 안전 싹터

이경재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공장장은 모든 안전의 바탕이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안전의식 고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 안전은 역시 최고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무재해 행진에 대한 소견은 무엇입니까.

1987년 한국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첨단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환경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유지해 왔으며 특히 1998년 안성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무재해운동을 시작해 16배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경영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업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종업원과 회사 간, 상사와 직원



들 간의 상호 신뢰가 쌓여 가면서 조직의 건전한 안전 풍토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원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정착될 때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❶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안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특별한 개발 노하우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부터 수시로 아차사고 사례 확보 및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사항을 포함한 제반내용에 대한 건의 및 제보를 받아 개선·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ESH Meeting과 경영자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도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에 관계없이 즉시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제안제도의 수집 및 시상, 월례 ESH 미팅 및 경영자 현장점검 실시, 매월 전 직원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❷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특별히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종업원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최고경영자가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앞세워 안전을 등한시하는 풍토 대신에 조직에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전풍토를 조성해 상호 신뢰를 통한 직원들의 만족과 몰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❸ 친환경 기업으로 이웃사회에 전하고 싶은 안전실천 의지가 있다면.

기업의 이윤창출이 경영의 최우선이라는 경영마인드를 대신해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윤리경영 및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실천의지 투철한 ‘안전 슈퍼스타’

안전의 달인 | 추상수 ETS부장

“안전은 관심과 실천의 결과물
봉사하며 안전 일구는 슈퍼스타”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무재해 기록을 만드는 주역으로 무재해추진 기술지원부의 추상수 부장을 꼽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특별한 안전노하우를 갖고 있다거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가진 안전관리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곳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안성공장에서는 당연히 ETS(Engineering & Technical Service) 추상수 부장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추 부장은 모든 직원들이 무재해의 주인공이라고 일컫지만 특별히 회사의 안전을 위해 공정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모든 부서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 뭐래도 추상수 부장이기 때문이다.

추 부장은 늘 ‘안전은 관심과 실천의 결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하루에도 수없이 접촉하는 이곳 근로자들에게 전해져 안전의식 고취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어느 안전관리자든 다들 그러하겠지만 추상수 부장은 한층 더 부지런히 현장을 쫓아다니며 안전이야말로 실천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과 중 중요한 것이 매일 공장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다. 드넓은 공장을 쫓아다니는 것도 이력이 남아 하지만 또 무슨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른 작업자들과 소통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추 부장을 ‘SSC’란 별명으로 부른다. SSC는 ‘Super Star Choo’의 이니셜이다. 물론 SSC는 그의 이름 SangSoo Choo의 이니셜이기도 하지만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무재해 16배의 주역으로 물불 안가리고 열심히 뛰는 추 부장을 ‘Super Star’로 칭송하는 듯하다.

추 부장은 일과 외에도 자원봉사팀을 이끌고 독거노인, 불우학생 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안성시로부터 자원봉사상도 받았다.

일하고 봉사하며 안전을 일구는 그의 하루하루는 값지고 소중하다.



KORAIL

광주본부

설립일 2006년
대표자 윤중환
대표전화 062-605-2146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
홈페이지 www.korail.com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근대화의 새벽을 깨운 이래 115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코레일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그 무엇보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코레일 광주본부는 철도의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 목표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안전마인드를 살려라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 정착

철도는 이미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문화와 감동의 향기를 전하는 생활의 동반자다. 그 초석이 안전이다. 이에 코레일 광주본부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진정 필요한 안전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정진하고 있다. 특히 소통·공감을 통한 종사자 참여형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 무재해 무사고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코레일 광주본부의 특별한 안전노하우는 어떤 것일까. 광주본부의 대표적 무재해운동이라면 2010년에 시작한 ‘전사 운동’과 지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동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코레일 광주본부는 철도의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 목표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본지키기 안전실천 5C운동'을 꼽을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아말로 말 그대로 안전의 바탕이 아닌가. 특히 이곳은 철도 사업장의 특성상 각 역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분산 근무하다 보니 소속별 관리감독자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지역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성안전 관리가 눈에 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본부장이 앞장서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Hi-Five가 서로의 안전의식을 깨우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안전관리자 기획점검

관리감독자 주도형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자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주입식에서 참여형으로 변환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안전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고 참여하는 안전대책을 개진함으로써 자긍심을 키우고 넓은 안목의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감독자 주도형 안전관리가 정착되면서 그 효과로 불안전요인 발굴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위험성 진단도 상호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한다. 교육 또한 일방 주입식 안전교육보다 상호 교감하는 안전교육 방식으로 개선, 실효성 있는 자율안전활동을 유도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

을 얻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 관리 'Key-man'인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나뉠의 사이버 콘텐츠도 개발토록 주문한다. 이에 따라 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문 순회교육 및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사이버교육도 겸하게 한다. 평가를 위해 안전법령 이해도를 측정 분석하기도 한다.

기관간 협력해 교차 안전점검

안전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그래서 본부간 교차 안전점검(CROSS-CHECK)을 실시한다. 본부간 안전관리 정보공유는 타 본부의 안전관리 기법 및 우수사례를 바로 우리 본부에 접목·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연계 안전활동을 하는 것은 이곳을 본받을 만하다.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기법을 체득하는데 유리하다. 안전이라면 여기서는 노·사의 뜻이 하나다. 노사



합동으로 안전관리 기본사항을 특별점검한다. 안전현안사항을 노사가 공유하면서 소통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노사 협력이야말로 절대 안전체제 확립의 원동력이 된다.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관리는 현안사항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기본사항 이행실태에 대해 전사 특별점검으로 절대 안전체제를 확립한다.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도 활성화돼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MOU를 체결했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도 유대가 단단하다.

전사적 불 조성 자발적 예방활동

코레일 광주본부의 무재해 운동은 매우 세밀하면서도 강력하다.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장조주건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달라 보인다. 전사 불을 조성하면서 자발적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꾸준히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수시로 실행한다. 안전



Boom-up은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 전사 봄을 조성해 자발적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한다.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정보를 습득한다.

PSM 업무수행능력 향상

공정안전보고서(PSM) 자체감사도 비중이 실려 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노력’으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등급이 한계단 올랐다. 디젤기관차(DL)용 연료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 자체심사에서 등급이 ‘M+’에서 ‘S’로 상향됐다. PSM 작성대상 위험설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4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부여하는데 M-(불량), M+(보통), S(양호), P(우수)로 구분돼 있다. PSM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힘이 실렸다.

합동 안전워크숍 운영(With safety work-shop)은 각 분야간 작업 중 발생하는 이견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야간 이해와 협조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관문이다. 합동 안전워크숍은 잦을수록 좋다며 운영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안전마인드 UP 맞춤안전교육

지위고하를 막론한 TOP-DOWN이 모두 공감하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또 ‘안전마인드 UP 맞춤 안전교육’은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리감독자 순회 및 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활동의 key는 종사자의 안전마인드를 고취시키는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 및 불안전 행동 예방대책에 대해 적시적소 맞춤식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불안전행동 예방대책, 각종 안전관리 사규, 안전관리 방안, 사다리 작업 안전대책, 직무 안전관리, 사고사례, 위험성 평가 방법절차, KOSHA 18001 운영 등이다. 안전수칙 준수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안전보호구 착용이다. 그리고 ‘안전보호구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안전보호구 착용의 실행력을 강화시키면 당연히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강화활동으로 한차원 높은 보호구 관리 및 착용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전보호구 관리상 문제점도 5종이나 개선했다. 보호구도 그렇지만 안전체험도 중요하다. 철도 안전체험센터를 통해 선제적 체험



을 한다. ‘선진 안전관리’를 체험으로 터득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와 같은 직·간접 체험을 통해 인명존중이념 확인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생생오감 체험을 통한 휴먼에러 방지와 실천으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전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선진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데는 역시 코레일 광주본부가 열성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기정착에 꼭 필요한 핵심 과제 6개를 선정했다. 4차에 걸쳐 안전보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시로 개최했다. 사업장 순회교육은 교육의 필수부분을 분석조사한 특별자료를 활용했다. 철저한 위험성평가를 위해 매월 ‘위험성평가 데이’도 운영한다. 법규는 최신법규를 분기별로 본부 홈페이지 올려 숙지토록 했다. 안전보건법규 운영을 위해서 법규 관리책임제를 만들고 관리자를 선정했다. 산업재해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응급처치체계를 구축했다. 재해구조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의료기관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정보의 파악, 상호협조체계의 구축, 재해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의 수립, 재해대비 물품의 구비와 관리, 훈련과 평가, 응급처치교육 등에 모두 빈틈없이 신경을 썼다. 직무사고 발생을 가상한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특히 밀폐공간 인명구조작업은 실제훈련을 거듭했다. 이를 위해 KOSHA 18001 운영 우수사업장을 벤치마킹했다.



광주본부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기본안전 확인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요소 골고루 구비

코레일 광주본부의 안전체크 포인트는 다양하다.

안전관리자 기획점검(Point check), 상호교감 위험성 진단, 본부간 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현안사항 해소, 본부간 교차 안전점검(CROSS-CHECK), 안전마인드 UP 맞춤 안전교육, 안전 Boom-up 조성, 선진 안전관리 벤치마킹 등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골고루 구비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레일 광주본부의 무재해 원동력은 '기본지킴이 안전실천 5C운동'을 전사적 추진하는데서 나오는 듯하다.

사실 기본지킴이 안전실천 5C운동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쉽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안전관리 기본실천 사항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코레일 광주본부에서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자율적인 안전실천 붐을 조성해 저변의 튼튼한 안전의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해발생 원인의 88%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안전실천 5C를 선택한 것이다.

이 5C는 복장단정(Correctness), 정리정돈(Clearance), 청소청결(Cleaning), 점검확인(Checking), 전심전력 (Concentration)이다.

그러고 보니 청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확보가 무재해를 낳는다는 안전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

“나의 안전은 가족과 코레일의 안전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대표적 무재해운동으로
는 ‘전사 Hi-Five운동’과 ‘기본지키기 안전실천
5C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
에 충실한 안전관리 추진’을 공표하고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철도사업장

Interview

광주본부장 **윤중환**

실천 없는 안전은 공허한 메아리일뿐 “안전위기 경보 포인트제” 도입 실효 거둬



의 특성상 각 역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분산 근무하다 보니 소속별 관리감독자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안전관리 추진과 완전한 정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성안전관리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 중입니다.”

윤중환 본부장의 안전에 대한 이해는 유연하면서도 심도가 깊다.

철도안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기도 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이곳 본부만의 노력에 대해 들어본다.

◎ 고객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욕구가 한층 커졌는데 코레일 광주본부에선 어떤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호남고속선 제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관내 역사 및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남고속선 개통을 통해 서울과 호남권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빨라진 시간만큼 이용객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 동안 메르스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24시간 차체 비상대책본부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인 주요역에 열화상카메라 선제적 설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해 철도를 이용한 각국의 젊은이들이 차질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무재해를 일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본부가 뛰어난 안전 활동을 펼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안전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활동 실적을 계량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전개하는 ‘안전위기 경보 포인트제’를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철도는 사고 발생시 그 파급여파가 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송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쉽 없는 훈련을 통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선 코레일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국내외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에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철도의 불변 최고의 핵심가치와 최우선 목표는 안전입니다. 열차의 안전운행과 열차이용 고객의 안전, 철도 종사자의 안전은 우리 철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이며 이를 위해 코레일의 전 임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안전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전 직원들과 함께 한치의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안전 목표 향해 달리는 기관차

안전의 달인 | 김주형 안전처 안전팀장

**“안전이란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손에 쥌 수 없어
모든 근로자 뺏속까지 안전의식 스며들도록 최선을”**



코레일 광주본부의 키맨은 김주형 안전처 안전팀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철도 사업장의 변치 않는 핵심 키워드는 ‘안전’. 그 안전을 여는 키맨 김주형 안전팀장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것이 2006년이다. 채 10년이 안되지만 그때만 해도 같은 직장동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업무는 불모지의 잡초나 다름없었다.

돌이켜 보면 그 초기에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안전이란 참으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결코 손에 쥌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진리였다.

그로부터 그는 오직 안전이란 목표를 향해 달렸다. 안전관리가 진정한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관리의 핵심 key-man인 관리감독자 스스로가 주도하는 안전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노하우도 터득했다. 특정테마 선정 기획점검(Point check),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향상 순회교육 및 분야간 합동 안전워크숍 등이 그에게서 비롯됐다.

“원래 제 성격이 차분하거나 신중하지 못합니다. 안전관리자로는 결격사유죠.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집에서 잔소리가 많다고 아내가 편잔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직장 안전점검 때 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지적하는 버릇이 무의적 중에 집에서까지 이어진 거죠.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국냄비 손잡이가 왜 바깥으로 향해 있느냐? 부터 시작해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보니 이래서 직업은 어쩔 수 없나보다 싶다. 안전을 담당하면서 부부싸움이 많아진 것 같다는 김 팀장은 그래도 항상 저주는 아내가 고맙다고 말한다. 남편의 안전업무를 이해하는 것이다. 언제나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김 팀장은 늘 안전담당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나?라고 반문한다. 더욱이 철도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해서 안되겠기에 모두들 뺏속까지 안전의식이 스며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며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KCC

전주1공장

설립일 1958년
 대표자 정몽진
 대표전화 02-3480-5000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홈페이지 www.kccworld.co.kr

KCC 전주1공장은 KCC의 여러 계열공장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바로 안전에 대한 것이다. 벌써 반세기 이상 건축자재 전문기업으로 기반을 다져온 KCC는 친환경 건축물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 KCC의 전주1공장은 친환경에 안전을 더해 무재해 우수사례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안전이 대세를 이루는데 KCC 전주1공장은 일찍부터 안전에 눈을 돌려 소중한 무재해 기록을 남고 있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라



친환경에 안전 입혀 무재해 사업장 일귀

KCC의 안전 노하우는 다른 무재해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별다르게 두드러진 게 없다. 그러나 이 별다르지 않은 가운데서 이곳만의 안전노하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서 안전을 만들어 내는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안전을 이해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만이 안전이란 값진 열매를 맺는다는 진실을 터득한 것이다. KCC는 현재의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KCC가 지닌 모든 기술을 융복합화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미래의 시장 전망을 통해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KCC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본사의 방침을 잘 파악하고 있는 KCC 전주1공장은 이와

이곳에서 안전을 만들어 내는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안전을 이해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만이 안전이란 값진 열매를 맺는다는 진실을 터득한 것이다.



더불어 안전에서도 으뜸 사업장이 되겠다는 의욕을 부풀리고 있다.

무재해 행진에 KOSHA 18001 인증도 획득

KCC 전주1공장은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인증받았다. KCC 전주1공장은 2014년 4월 공단에 인증 신청을 한 후 실태조사와 인증심사를 거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증을 받고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의 안전조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경영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증하게 된다. 그런데 KCC 전주1공장의 경우 이 인증 획득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KCC 전주1공장은 이미 2009년에 무재해 5배를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 무재해 10배를 기록한 후 이제 무재해 15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KCC 전주1공장은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전북지역의 중추적인 근로현장이다. 여기서는 PVC 창호, AM, DCB 등 3개 공장이 PVC 창호와 전기전자용 세라믹,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을 생산한다. 1993년 PVC 공장으로서 시작한 KCC 전주1공장은 1996년 12월 ISO 9001(품질경영체제)에 이어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F 3117(창세트), KS F 3109(문세트), TS 16949(DCB세라믹기판), Gosstandard Of Russia의 Gost-R 등 각종 인증을 획득했지만 이 중 안전과

관련한 KOSHA 18001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 이곳에 일하는 인원은 사무직 99명, 기능직 248명에 협력업체 150명을 합치면 근 500명이다. 그간 건축자재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비롯 기술개발부문 ‘대상’ 등 많은 상을 타고 ‘2009 세계일류상품’, 미국 Eaton사 ‘우수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수상기록도 우수하지만 2009년의 무재해 5배, 2013년 무재해 10배 달성 등 안전기록이 이들을 자랑스럽게 한다.

반갑게 인사하며 ‘안전스타트’

KCC 전주1공장의 안전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곳만의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있다면 안전을 안전으로 이해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과 꾸준한 교육이 그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전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곳의 안전은 전주총괄공장장이 이끄는 안전환경부가 선봉을 담당한다. 물류관리부, 서무부, 품질보증부, 공무부, PVC생산부, AM생산부, 전주기술연구소 등 기타 부서는 부서별로 또 안전체크를 한다. 뒤편 뒤편 해도 KCC 전주1공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특별 안전교육이다.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교육, 화학약품사고 예방교육, 협력사대표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협력사관리감독자 교육,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등 안전을 위한 교육을 두루 꿰고 있다. KCC 전주1공장의 안전스타트는 반갑게 인사하기



로 열린다. 이 인사에 안전에의 당부가 실려 있다. 하루 작업의 안전을 위해 안전최고책임자인 공장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부서장의 조조순찰이 시작된다. 그것이 매일 오전 6시부터다.

기술력 뿐 아니라 안전도 으뜸되는 사업장

이곳 작업자들은 수시로 안전활동 선언문을 낭독한다. “나는 어떠한 불안전행위도 하지 않겠다. 나는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지키겠다. 나는 불안정한 요소를 항상 지적하고 개선하겠다. 나는 불안전 행위를 지적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박수 세번으로 마감한다. 늘 새로운 다짐으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다. 이곳의 활성화된 안전밴드도 효과가 크다. 안전밴드를 통해 매일 작업 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막연하게 안전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빈틈없이 안전을 일깨우는 작업이 효과를 낸다. 본사주관으로, 그리고 부서장이 앞장서서 수시로, 또 정기로 안전진단을 한다.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컨디션이 나쁠 때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노사 주도의 건강증진활동은 만점에 가깝다. 전문가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교육,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작업장 곳곳 빈틈없는 안전환경관리

어느곳이든 무재해를 일구는 첫째조건은 환경이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안



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이곳의 생산품은 친환경제품이다. 당연히 환경에 신경을 쓰겠지만 이곳에선 환경관리에 빈틈이 없다는 쇠가 어울릴 듯싶다. 작업 환경개선사례를 보자. 모든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 건널다리를 만들었다. 작업장 들뜸이 보이는 바닥을 찾아내 보수하고 비방폭 콘센트는 모두 제거한 뒤 불량배선이 있나 보고 정리한다. 상자대 보호대와 발판을 개선해 안전도를 높이고 물류창고 메탈등에는 커버를 부착했다. 원료보관지역의 지게차는 기둥에 충돌할 위험이 커 기둥에 완충장치를 달았다. 기둥 보호커버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들었다. 포장공정 비상시엔 긴급탈출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복도에 LED 유도선을 설치했다. 제법 경비가 드는 작업이었다. 협력업체 교육장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했다. 추락의 위험이 있어 사전방지 조치를 했다. 안전용품은 어느 곳에서나 지원하지만 화물기사에게도 안전모를 씌웠다. 곳곳에 비상용 랜턴을 설치하고 귀마개 지급함까지 만들어 달았다.

안전을 위한 위험포인트 도출

무재해 기록관은 안전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하루 쌓이는 무재해 기록





을 작업자들이 관심있게 체크토록 했더니 이에 대한 의무와 자긍심을 공유하게 됐다. 교육자료 및 위험포인트를 제작·배포하는 것도 효과가 컸다. 앞으로 자료정리 및 제본에도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무재해 기록을 만들면서 확인한 사실이 근로자에 대한 홍보효과였다.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의 확실한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위험포인트 도출작업은 필수불가결하다. 위험포인트를 잡으면 그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특히 협력업체에는 각종 위험포인트 도출 결과를 알려줘 100%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공종별 세부 위험요인 도출에서 아차 사고사례까지 작은 것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나아가 여기서는 앞으로 계속 일상적인 작업방법을 관찰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훌륭한 위험포인트집 및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기도 하다.

e-learning 통해 전문성·직무능력 높여

KCC 전주1공장의 안전노하우라면 결국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Learning과정을 통해 구해낸 안전직무능력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교육 기회 확대로 구성원



의 반복적 교육에 따른 안전 전문성 향상을 시도한 것이 무재해 기록을 불려왔다. 대부분의 근로현장들이 안전교육 기회의 절대 부족에 따른 제약을 벗어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KCC 전주1공장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현실감 있는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연결시켰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KCC 안전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도 무재해를 낳는데 주효했다. e-learning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구성원의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관리역량 향상을 이끌어 낸 것도 KCC 전주1공장의 값진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1공장 안전 포인트

Safety
Point

‘수평적 소통 · 배려의 문화’ 정착시켜 기본에 충실한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공장장의 운영방침과 목표는 안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생산 최적화를 위한 LINK업 무 강화’라든가 ‘품질 최우선 마인드 기반 시장경쟁력 확보’를 따르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주1공장은 그 위험요소를 찾아내 극복해야 할 만큼 안전환경 예방활동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공장운영은 바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은 기본이 중요하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SCM활성화를 통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주인의식 존중 및 배려기반의 공장문화 정착’도 이 공장의 무재해 기록과 무관치 않다.

공장장의 운영방침이 실천하기에 무거워 보이지만 안전의 기본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다. 공장장은 열심히 독려하고 앞장서서 안전을 점검한다.

안전문화가 무게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정착된 곳이 전주1공장이라면 여기서 무재해 무사고가 잉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전 직원에게 e-learning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구성원의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보니 그로부터 안전한 공장으로 자리잡는 동력이 생겼다.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자료로 꾸준히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시켜 모든 위험요소를 안전사고 예방과 연결시켰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KCC 안전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협력업체의 협력없이는 안전을 일궈내기 힘든 것이다.

KCC 전주1공장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안전보건활동을 펼치는 것도 인상적이다.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높임으로써 그만큼 안전도 강화된다는 것을 이곳 근로자들은 실감하고 있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방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영진 KCC 전주공장장은 전 직원들에게 늘 ‘현재 안전할 때’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CC 전주공장에는 공장이 3개가 있습

Interview 전주공장장 정영진

안전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장착 안전 실천 무재해 사업장 표본 될 것



니다. 이 3개의 공장은 모두 안전을 최우선시 합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공장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정영진 공장장의 안전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고 분명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항상 공장을 점검하고 안전을 당부하는 최고안전관리자의 모습에 직원들도 어느덧 안전의식을 몸에 붙이고 일한다. 안전을 생각하고 일을 하니 그만큼 안전하고 무재해 기록을 일구는 것이다. KCC 전주공장의 안전노하우가 무엇인지 정영진 공장장에게 들어본다. 오래 전부터 모든 회의 및 모임 때 안전·보건·환경의 주제를 제일 첫번



째 순서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주제안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의 안전비결이라면 특별한 노하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침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덕분에 저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 공장 점검과 관리,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부서장들과 조조순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순찰하면서 그곳의 직원들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무재해 활동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무재해 활동들이 결국은 나에게 충분하게 개선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전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소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KCC 전주공장의 앞으로의 안전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앞으로도 무재해 사업장의 표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뛰겠습니다. 홀홀단신이 아닌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뛰고 안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출몰

안전의 달인 | 오영민 안전관리자

“저를 ‘안전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 달인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공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이죠”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게 달인이라면 그 점에서는 달인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도 이력이 나 있으니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다. 하긴 요즘은 최소한의 기본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니 기본에 철저한 사람이 오히려 별나거나 튀어 보이는 것이다.

하여튼 전주공장에서 오영민 안전관리자는 ‘홍길동’이라 불린다. 홍길동이 그의 별명이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현장 저 현장에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절대로 책상에 앉아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곳곳을 순찰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 개선책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고민은 고민이지만 나쁜 고민은 아닙니다.”

홍길동이 괜히 홍길동이 아니다. 열심히 뛰는 안전관리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적 홍길동처럼 무엇인가 보람있는 것을 전달한다.

소통을 통한 안전이다.

“현장의 직원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쫓아 다니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그는 공장에 들어서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안전을 간절히 기도한다. 그 안전을 위한 소망이 그를 홍길동처럼 뛰게 하는 원동력이다.

휴일이나 틈이 나면 자녀들과 장애인보호시설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운전봉사도 한다. 안전 때문에 이런 시간이 부족한 게 안타깝다.

따지고 보면 이곳 전주공장은 정영진 공장장의 그림자처럼 공장 전역을 누비는 오영민 안전보호자 때문에 안전을 이해하고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무재해 기록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안전이 미래다